

2인자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2인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댄 저스터 Dan Juster의 보조로 베일 메시아 Beth Messiah 공동체에서 5년을 섬겼고, 쥘로우 스위저 Thurlow Switzer 아래서 기독교 고등학교를 4년간 섬겼고, 요셉 술람 Joseph Shulam의 보조로 네티비아에서 4년을 섬겼고, 일란 자이미르 Ilan Zaimir 아래서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 the Messianic Jewish Alliance 을 3년간 섬겼으며, 아리 소르코람 Ari Sorkoram 아래서 티페렐 예슈아 Tiferet Yeshua 를 4년간 섬겼습니다. 물론 과거 프레드릭에 위치한 엘 샤다이 El Shaddai 에서나, 현재 예루살렘의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아하발 예슈아에서는 최고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치하의 중심적 지도자였고, 파라오 밑엔 요셉이 있었으며 아하수에로 왕 아래엔 모르드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2인자 자리에 비록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선 진정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인자의 삶이 성경적 사역 형태인 것은, 예슈아께서 2인자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더 크시지만 (요 14:28), 예슈아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성경의 중심인물이십니다.

감독 대 실행

1인자라는 위치는 보통 감독자의 기능을 하는 반면, 2인자는 현장에서 실행을 이끕니다. 마치 코치와 팀 주장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주장은 코치의 권위 아래서 움직이지만,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선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권위적 감독자와 실행 주도자 역할을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코치와 주장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가 어렵듯 말입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아하발 예슈아에서, 저는 코치 역할만 하며 팀원들에게 가능한 한 주요 역할들을 모두 주려고 애씁니다.

또한 2인자로 살다 보면 인격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최고 장군으로 있으며, 모세가 산에서 팔을 들고 있는 동안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출 17:10-11). 우리는 이것을 “다른 이들의 비전을 섬긴다”고 표현합니다. 인격 (성품)과 카리스마는 동시에 계발됩니다. 2인자로 섬길 때, 우리는 겸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부가적 축복을 받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불평들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내부의 불평과 분열로부터 모세를 보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역자가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부서”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고 저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어떤 이가 사역 때문에 실족했고, 제게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는 그 노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불평과 공격은 최고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2인자 위치는 보호를 받습니다.

2인자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익은 개인 묵상의 시간 (devotionals)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 해결에 시간을 많이 보냈기에 (출 18), 여호수아는 주님의 임재를 맛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 33:11). 후에 여호수아는 성지 정복을 이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모세를 섬기던 일의 연장이자 확장이었습니다 (수 1:2-8).

사탄, 압살롬, 그리고 요압

2인자로 섬긴다는 것에는 두 가지 위험도 있습니다. 루시퍼 (힐렐 벤 샤하르 Hillel ben Shachar)는 미가엘, 가브리엘과 더불어 최고 천사들 중 하나, 그러니까 2인자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침투해왔고, 교만은 질투로 이어졌으며 질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 14, 겔 28). 2인자 자리에서 섬길 땐, 매일 깨어 있어 질투와 실족을 일으키는 사탄적인 생각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린 둘 중 한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우아하고 능력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리더십에 대해 불만을 갖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은사를 인해 사람들은 그에게 충정을 바치게 되었고, 압살롬은 미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뺏기 시작했습니다 (삼하 15:1-6). 2인자로서 우리가 할 일 중 하나는 최고 지도자를 향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다윗의 부하이자 위대한 장군인 요압입니다. 그는 승리를 누렸고 품행이 방정했으며, 용기 있고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궁전에 머무르며 간음을 저지를 동안, 그는 전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탁월한 능력은 결국 다윗을 배반케 했고, 다윗이 지도층으로 세우려 애썼던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압살롬의 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예언적 은사를 받은 이들은 요압 증후군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합니다.

오용된 리더십을 떠나라

때로 2인자로 섬기는 가운데, 지도자가 지도권을 악용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울 왕 아래 있던 다윗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질투를 갖게 됐고 정신 줄을 놓아,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충성과 헌신을 다했으나, 모든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우리는 화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언약 안에서 대화로 죄악을 맞서야 합니다 (마 18 장의 원칙에 따라).

그것이 실패한다면, 다윗이 그 다음으로 행한 일을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1) 떠나다. 2)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해도 계속 머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권력의 피해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가 그러한 나쁜 지도자 밑에 머무르게도 하십니다. 그런 경우엔, 주께서 영적 타격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날 때 지리적으로 한동안 스스로를 분리시켜, 분열의 요인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동지들의 원함에 맞서서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사울의 명성과 지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 왕이 될 것을 알았고, 권위의 옳은 질서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오용할 때 2인자가 어떻게 떠나는가의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슈아의 길을 따라, “2인자로서”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가 조직의 가장 위에 있을 때에라도, 실상은 2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예슈아의 지휘 하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인자로 섬긴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슈아의 왕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길입니다.